# 2014 8.31 연중 제 22 주일

제 1 독서 : 예레미아 20,7-9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치욕만 되었습니다.>

**제 2 독서** : 로 마 12,1-2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복 음: 마태오 16,21-27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복음말씀과 제 1 독서, 제 2 독서를 되새겨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취미생활과비슷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미사를 나와도 그만 안나와도 그만,

이런일이 있으면 이렇고, 저런일이 있으면 저렇고. 아니면 내가 부득이한 일때문에 미사를 빠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하는가? 또 내 이웃이 어렵고 힘들때에 나는 그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 말씀을 읽다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사이들하고 학자들 하고 계속 부딪치는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달콤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혀는 때로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섭게 잘라버립니다. 아주 단호하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십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리사이파들, 사두가이들, 율법학자들, 대사제들은 다 하느님께 자기자신을 바쳤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보시기에 그들에게 가장 부족하게 보였던것은 바로 자비가 없었다 는 것 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것, 하느님 아버지는 바로 사랑과 자비가 본질인데, 용서가 본질인데 그것을 이 지도자들이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주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각자의 생활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요. 혹시 나의 일상 생활안에 바리사이적인 것은 없는가? 내 이웃을 단죄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용서 하는 것이 힘들고, 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기가 힘든 그 자체는, 아직도 우리자신들이 바리사이들 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사제서품을 받고, 군대말로 막 임관된 소위처럼, 밥풀대기 하나달고 모든 것을 규칙대로 ,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열받고, 가슴아파하던 때 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저는 솔찍히 말씀드려서 연세드신 선배 신부님들, 이곳 미국 신부님들을 보면 이해가 안갔습니다. 항상 웃고 다니셔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때는 우리 가르침에 삐긋하게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왜 저러실까? 하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제 생활을 하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도 사제 생활 초기때는 저처럼 정통이란 정통을 주장 하시면서 사목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사목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기대도 많았고 실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느낀것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그릇이 있다는 것, 그 그릇은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판단 한다는 것.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능력이 있는데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를 못한다는 것. 다른 사람이 보았을때는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만큼 능력과 재능이 있는데 왜 못해! 라고 판단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한국 공동체에 특히. 왜냐하면 우리 한국 공동체는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능력있는 분들이예요. 능력과 재능이 많으시고 재물도 있으신 분들이예요. 우리 히스페닉 공동체와 비교하면 부자중에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착각이 왔어요. 왜 안하실까? 왜? 이렇게 하면 좀더 행복하고, 돈도 더 벌터인데 ... 왜 안하지? 그런데 그것이 제 잘못이라는 것을 제 자신을 보고도알았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남들이 볼때, 제가 능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더라구요. 언어능력과 예술적인 감각과 또 부지런하지요, 손재주

도 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살았지? 생각해보니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것 이더라구요. 한편으로는 게으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의 성격탓도 있었고. 이제 제 스스로가 이를 알아차리고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못하고 있구나 . 이것을 생각하 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 각자분들, 이제는 저를 잘 아시죠.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움직이시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또 움직이실 것이고.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마음 아파 하실 것이라는 것도 이제 다 알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이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들에게 양면이 있더라구요. 무한히 착하시면서도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일반 독 보다도 더 강한 것이 그 순진한 사람들의 독이더라구요. 쉽게 풀리지가 않는 독이예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형제 자매님들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고, 착하신 분들이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민 공동체의 한결같은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다들 정에 메마르신 분들, 외로운 분들이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따뜻한말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확 갑니다. 그대신 서운한 말을 한마디만 들으면 반대로 확 돌아서버리고 맙니다. 어린아이들처럼 ! 우리는 이제 서로를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확 돌아가면 감싸 주세요. 그리고 또 이상한 말을 하면 "때가 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형제 자매님들 저보다 해박한 지식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어요. 성령대회, 특강, TV, 인터넷등을 통해서 많이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수차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형제 자매님을 바꾸고 변화 시킬 사람이 없어요. 하느님도! 하느님 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셨지만 사용을 안하십니다. 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바뀌려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드렸듯이 자기자신에 대한 성찰을 매일 하여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다른 상대는 어떻게 듣는가? 매번 갈등이 일어 나는것이, 내가 의도한대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는것이 아니더. 라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형제 자매님들 한결같이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대로 들어줄 것 처럼! 그러나 상대는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과 2 독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요. 바오로사도께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하십니다. 어떻게 바쳐야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느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복음 말씀을 따르라는 것 이지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한번 깨달아야 할 말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됩니다.

이삼년전에 유명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육십이 안되어 암으로 죽었습니다. 바로 스티브잡스 입니다 . 수억 달러와 또 아이폰이라는 것을 발명하여 유명해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얼마전에 로빈 윌리암, 저 역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 웃음, 유머러스하게 사회의 잘못된 실상을 재미있고, 코밐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일흔도 안되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모든것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냐 하면 마음안에 하느님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말씀 드리지만 형제 자매님들 물질적으로 부자이십니다. 적어도 히스페닉 공동체의 신자분들에 비하면. 물론 매일 매일 전기세,가게세등등 걱정들을 하시지만 그것은 가진자들의 고통이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 걱정을 안하고 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보기에 12 년전에도, 형제 자매님들 매일 매일 그런 걱정하고 사셨는데 지금까지 오셨어요 . 그런데 그 12 년을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사셨 으면 그 12 년이 행복한 삶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 내 머리만 믿고 살았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이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고 주님께 맡기고 사시면 행복 합니다. 교황님이 인터뷰를 하실때에 자주 당신의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흔 다섯에 사경을 헤매시다가 기도 덕분에 다시 기력을 차리셨 습니다. 차동엽신부님의 말씀을 빌리며는, 저의 어머니는 참으로 **깡다구**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 깡다구의 힘은 무지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의지 , 그 분께 대한 믿음 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이역만리 혼자서 이곳을 오셨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오셨냐고 인사를 드렸을때에 무엇이라고 대답 하셨습니까? "왜 내가 혼자야?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함께 오는데 ...." 깡 다구, 그런 깡다구를 한번 부려 보세요. 그러면 삶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사이에 두려움이 들어 옵니다. 그래도 자꾸 신앙, 하느님 아버지를 떠올리도록 하십시요. 이제 우리 공동체를 따져 보니까 똘똘 뭉칠 수 있는 인원이 약 30 명 정도 됩니다. 약 스무가정 정도 입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차동엽신부님이 주고 가신 책을 읽고 있는데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교황님이 첫 인터뷰를 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문기자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요. 당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그랬더니 교황님의 첫 마디가 **" 나는 죄인입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남을 욕할 필요도

"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성한다면, 남을 욕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척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 입니다."

### <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치욕만 되었습니다.>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0.7-9

7 주님, 당신께서 저를 꾀시어 저는 그 꾐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8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9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 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시편 63(62),2.3-4.5-6.8-9(◎ 2 ⊏ 참조)

-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 <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2,1-2

1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2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

##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21-27

그때에 21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흗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27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